

체육학석사 학위논문

주 5 일 근무제가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지 삼 업

이 논문을 체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체 육 학 과

이 동 진

이동진의 체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12월 일

주 심 행정학 박사 권 혁 동



위 원 체육학 석사 이 태 웅



위 원 이 학 박사 지 삼 업



목 차

Abstract

I . 서론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제한점	4
3. 연구의 문제	5
4. 연구의 가설	6

II . 이론적 배경

1. 주5일 근무제	7
1) 주5일 근무제의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	8
(1) 삶의 질 향상	10
(2) 실업문제 해결	11
(3) 레저 패턴의 변화	11
(4) 경제 활성화	12
2. 해양스포츠의 이해	14
1) 해양스포츠의 개념	14
2) 장비 특성 및 제도화(운동문화)별 분류	18
(1) 장비의 기능적 특성에 따른 분류	18

(2) 제도화 및 비제도화 별 분류	19
3) 해양스포츠의 기능	21
3. 생활체육측면에서 본 해양스포츠	22
1) 해양스포츠의 현황	22
2) 국내 해양스포츠의 문제점	23
(1) 부족한 해양스포츠 시설	23
(2) 고가의 장비	24
(3) 관련 프로그램의 부족	24
(4) 관련 정책	25
(5) 안전법규 및 안전성	26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27
2. 연구설계	28
1) 연구 모형	28
2) 설문지의 구성	29
3) 설문지의 타당도	30
4) 설문지의 신뢰도	30
3. 연구절차	32
4. 자료분석	33

Ⅳ. 연구 결과 및 고찰

1. 연구 결과	34
1)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 종목	34
2) 해양스포츠 활동 참여 여부	38
3) 해양스포츠 활동에 사용되어지는 금액	39
4) 해양스포츠 활성화 장애 요소	41
(1) 경제적 부담	41
(2) 시간 부족	42
(3) 접근성 불편	42
(4) 해양스포츠 시설 부족	42
(5) 해양스포츠 프로그램 부족	43
(6) 해양스포츠 정보 부족	43
5)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선호도	44
(1) 관심	44
(2) 비용	45
(3) 시간적 여건	45
(4) 흥미	45
(5) 안전	46
(6) 체력증진	46
(7) 자아실현	46
(8) 스트레스 해소(기분전환)	46
(9) 대인관계	47
(10) 가족 화합	47
(11) 모험 스포츠	47
6)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만족도	48

(1) 체력증진	48
(2) 관계증진	49
(3) 가족 화합증진	49
(4) 자아실현	49
(5) 스트레스 해소(기분 전환)	50
2. 고찰	51
1)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 종목	51
2) 해양스포츠 활동 참여 여부	52
3) 해양스포츠 활동에 사용되어지는 금액	53
4) 해양스포츠 활성화 장애 요소	55
5)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선호도	58
6)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만족도	63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66
2. 제언	68

참 고 문 헌

부록

표 목 차

<표 1> 주5일 근무제 시행 년도	9
<표 2> 조사대상자의 현황	27
<표 3> 주5일 근무제가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	28
<표 4> 설문지의 구성 지표와 구성내용	29
<표 5> 설문지에 대한 신뢰도 분석	31
<표 6> 자료분석 방법	33
<표 7>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 종목	34
<표 8> 해양스포츠 활동 참여 여부	38
<표 9> 해양스포츠 활동에 사용되어지는 금액	39
<표 10> 주5일 근무제 미실시 집단	40
<표 11>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	40
<표 12> 해양스포츠 활성화 장애 요소	41
<표 13>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선호도	44
<표 14>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만족도	48

The effects of 5-day Work System on Activation of Marine Sports.

Dong Jin Lee

*Graduate school of Physical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5-day work system on activation of Marine Sports as being assumptive giving variety to citizen's leisure time on introducing of 5-day work system.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5-day work system on activation of Marine Sports, this study inquired by 244 of adults who are over 20year-old, men(136) and woman(108) who live in Busan.

The results runs as follows:

1) The effects of 5-day work system on participation of Marine Sports indicated that the average of the group having 5-day-work system is higher activities of Marine Sports than the group not having 5-day-work system. Therefore, that study indicate if they had 5-day-work system, they participate more in Marine Sports.

2) The average of both groups attendance on activity of Marine Sports shows

in high. Because of all of the two groups indicated high, in case of coming into effect 5-day work system, they will have more attendance on activation of Marine Sports.

3) The cost of the group having 5-day-work is higher after 5-day work system than the group not having 5-day-work system. however, two groups indicated high in the cost(less than 100,000won, 100,000won~200,000won). Both groups indicate if they have 5-day work system, the cost on activity of Marine Sports increase.

4) The study shows us that the group having 5-day-work system feel less the troubles about shortage of their time than the group not having 5-day-work system. Further, their two groups seem like similar in burden of money, inconvenience of approach to Marine Sports and shortage of Marine Sports facilities, programs, information but almost, the group having 5-day-work don't feel the troubles seriously like the group not having 5-day-work system. Thus by enforcing 5-day-work system, the effect which can give the Marine Sports means that people may have afford time and money as well. One more thing is that people having 5-day-work system can have more chance of many facilities of Marine Sports, program, information.

5) The average of the group having 5-day-work system indicate higher in preference on activity of Marine Sports than the group not having 5-day-work system. Therefore, the group having 5-day-work system prefer more preference of activity on Marine Sports than the group not having 5-day-work system.

6) The average of the group having 5-day-work system indicate higher in

satisfaction on activity of Marine Sports than the group not having 5-day-work system. Therefore, the group having 5-day-work system is satisfied with more activity on Marine Sports than the group not having 5-day-work system.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자연이 역사를 결정한다”는 자연결정론(nature-directed)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해양국가일 수밖에 없다(이동근·한철환·엄선희, 2003). 게다가 1945년을 축(軸)으로 봐도 대륙과는 통로가 막혀 있는 등 섬나라와 다를 것이 없는 사실상의 해양국가이다. 실제로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아무리 깊은 내륙지역도 해안으로부터 겨우 16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한 3,150여 개에 달하는 많은 섬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해양스포츠 전진기지 구축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해안선도 육지 면적에 비해 세계에서 가장 길다. 그중 부산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일 뿐만 아니라 수질도 청정한 가운데 다도해 지역이어서 바다에는 높은 파랑이 거의 일지 않는 등 전지역이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적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지삼업, 2004).

특히 이와 같은 자연환경의 엄밀성을 통해 사실의 진수(眞髓)가 발견되고 있다고 볼 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선진 해양국가를 중심으로 크게 선호되고 있는 해양스포츠에 대한 시민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또 부산, 삼척, 충주 등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양스포츠를 고갱이로 하는 해양체험관광지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등은 매우 자연스런 사회현상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바다생태계에 적응한 바다문화의 적응적 진전과 특화, 계통발생적분지(分枝)의 결과라는 점에서 환경과 문화(생활양식)의 공진화(coevolution) 소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삼업, 2004).

우리나라는 2002년 4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1차 주5일(40시간) 근무제를 시범 실시하였다. 2004년 7월부터는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주5일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7월에는 300명 이상 사업장 등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에 걸쳐 전면 실시될 계획으로 있다. 더욱이 물질적 가치나 명예보다는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웰빙(Well-being)개념이 사회 일반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의해 개인 여가시간도 대폭 증가함으로써 비일상의 충만을 위해 원거리도 개의치 않는 가운데 자연·모험적인, 혹은 동적인 생활스포츠가 더 많이 선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의 욕구가 생활중시에 모아질 것이 분명한 만큼 시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각종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다각적인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자연환경에서 이뤄지는 해양스포츠와 같은 여가 활동들은 그러한 요건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해양스포츠 활동 공간인 바다와 강을 비롯하여 호소(湖沼: 인공호·자연호) 등이 풍부하다. 또한 해양스포츠는 자연스포츠로서 생태 친화적인 스포츠의 표상(表象)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특히 해양스포츠 활동은 심리적 만족과 신체적 만족, 환경적 만족, 교육적 만족, 사회적 만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순도(純度) 높은 여가활동의 축소(縮圖)라고 할 수 있다(지삼업, 1999).

해양수산부는 요트 등 해양스포츠인구의 증가에 따라 2000년에 수립한 ‘해양한국(OCEAN KOREA) 21’과 연계시킨 ‘2004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통해 보트계류장 및 마리나 시설을 비롯하여 낚시터 조성, 그리고 노후항만에 대한 리모델링 시 크루즈(유람선), 요트, 수상오토바이, 보트낚시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개발을 비롯하여 일반항만 및 어항의 신설

또는 확장 시 해양스포츠 중심의 해양체험관광시설 병행 설치, 뿐만 아니라 해양스포츠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 등 각종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해양수산부, 2004). 그러나 해양스포츠는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타 종목에 비해 구멍가게 수준의 업체들이 난립하는 등 질적으로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활동 장소의 제약, 전문 지도자 부족, 관련프로그램의 부재, 관련법규의 제약, 국산장비 개발 부족, 일부 지역의 수질오염 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제(難題)가 해양스포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체육과학연구원(2001)이 전국의 성인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어 여가시간이 지금보다 증가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 21.5%, 운동 및 스포츠 18.1%, 캠핑 및 등산 10.2%, 레슨 및 취미활동 7.1%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여가시간이 늘어나면 삶의 만족도는 상당히 향상될 것이며, 업무능률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을 상정(想定)하여 주5일 근무제가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의 제한점

주5일 근무제가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거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양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종목과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거주 20세 이상 일반인(남·여)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둘째, 해양스포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 연구 외의 다른 잠재적 요인 즉, 근무환경, 생활환경, 운동능력, 신체조건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해양스포츠 활동이외의 다른 생활체육 활동도 일부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연구의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검토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주5일 근무제 실시 유무가 해양스포츠 활동 참여 영역(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2) 주5일 근무제 실시 유무가 해양스포츠 실시 유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3) 주5일 근무제 실시 유무가 해양스포츠 활동에 사용되어지는 금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4) 주5일 근무제 실시 유무가 해양스포츠 활성화 장애 요소(문제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5) 주5일 근무제 실시 유무가 해양스포츠 선호도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6) 주5일 근무제 실시 유무와 해양스포츠 만족도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4. 연구의 가설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假說)을 설정하였다.

- 1)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집단이 실시하지 않는 집단보다 해양스포츠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을 것이다.
- 2)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였을 경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 전보다 해양스포츠 활동에 더 많이 참여 할 것이다.
- 3)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다른 스포츠 활동에 비해 해양스포츠 활동에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할 것이다.
- 4)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집단이 실시하지 않는 집단보다 해양스포츠 활성화 장애요소가 적을 것이다.
- 5)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집단이 실시하지 않는 집단보다 해양스포츠 활동을 더 많이 선호할 것이다.
- 6)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집단이 실시하지 않는 집단보다 해양스포츠 활동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주5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란 근로시간의 단축을 의미하며, 완전한 의미로서는 토요일무제도로써, 주당(週當) 40시간 이하(하루 8시간근무)의 근무제도를 말한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산업화가 활발해지고 어느 정도 발전한 후에는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근로시간의 단축이 제기되었다. 발전을 거듭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고용확대가 진행되다 1차 석유파동 이후 그 속도가 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에 와서는 고용창출 또는 기업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이 논의되고 있다. (김소영·전병유·유성재,2001)

근로자의 여가생활에 관하여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근로자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 부족, 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결여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중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지목한 것은 시간적인 여유 부족이었다(양성인, 2002).

이에 따라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 기준에 걸맞도록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연간 2,000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휴일·휴가의 합리적 조정 및 실제 사용하는 휴일 및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노사정위원회, 2000). 또한 정부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입법화를 서두른 결과 2003년 8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일차 2002년 4월부터 공무원 및 은행권을 중심으로 토요일 휴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어서 2004년 7월에는 공기업, 금융 및 보험 등 1,000인 이상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실시되고 있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즉,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확대되어 자신의 심신단련 및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고, 생활체육의 수요를 크게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면 국내 근로자들의 휴일 휴가일수는 약 38일 증가한 연간 134~144일이 된다. 이는 일본(129~139일), 영국(132~137일)보다 많으며, 독일(140일), 미국(142일), 프랑스(145일)등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이와 같은 휴일수의 증가로 인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가의 활용 문제일 것이다.

1) 주5일 근무제의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시간 단축은 1997년 대통령선거후보자들이 선거공약으로 근로제도 개선을 제시한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이후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의 일환으로 임금,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의 개선을 포함하였다. 1998년 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근로시간 위원회를 구성기로 합의, 당해 6월에는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위원회를 설치,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논의하였다. 2000년 3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 관련 검

토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특별위원회 설치,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해 포괄적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 내용은 주 40시간, 연간 2,000시간 이내로 단축, 휴일·휴가 합리적 조정 및 실제 사용하는 휴일·휴가 일수 확대, 업종별·규모별 단계적 시행이다(노동부, 2003).

<표 1> 주5일 근무제 시행 년도

시행년도	사업장 규모
2004년 7월	공기업, 금융·보험 및 1000인 이상.
2005년 7월	300인 이상.
2006년 7월	100인 이상.
2007년 7월	50인 이상.
2008년 7월	20인 이상.
2011년 이후	20인 미만.
학 교	중소기업 시행령시기 고려.

자료: (KPI, 2003). 주5일 근무제 공개강좌, 한국인사관리협회

그러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노동자의 50%이상에 해당되는 2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1년에 실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는 이미 본격 실시되고 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생활체육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속 시원히 안내해 주지 못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물론이고 대학의 학과마저도 거의 없어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국가의 건전한 생활체육 활동, 창조와 전수에 있어서 큰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한광일, 2003).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만족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만족도 중요하다. 이러한 정신적인 만족을 제공하는 생활체육활

동을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해서, 국가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족에게는 ‘가족기능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업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한광일, 2003).

(1) 삶의 질 향상

삶의 질을 높이는 공통적 기능은 인간존엄성, 공정한 참여와 기회, 신체·정서·정신·사회·문화적 만족감 등이다. 국민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적절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여가 활동을 통하여 몸과 마음, 정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다.

주5일 근무제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단축은 과로에서 오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노동강화에 따른 근로자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작업 환경, 작업조직 등의 개선을 통하여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노동 강도의 강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다(구률희, 2002). 여가시간의 증가는 각자의 취향과 개성, 적성에 맞는 다양한 여가·취미활동 및 생활체육을 하게 되어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지식인·문화인으로 성장하게 한다. 또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감소된다. 나아가서 과로사와 일 중독증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난다.(전태훈, 2000)

근로시간 단축이 가지는 또 다른 의의는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복지 향상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임금구조의 문제점, 생산관리의 비효율성, 외형적 성장방식 추구가 가져온 장시간 근로의 관행을 철폐하고,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득과 생활체육 두 가지 측면의 균형적인 발전

을 가져오는 것이 주5일 근무제의 의의이다(김소영·전병유·유성재, 2001). 그리고 생활패턴을 직장중심의 음주문화에서 가족중심 여가문화로 변화시켜 가족간의 친밀감 증대와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2) 실업문제 해결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가 활동은 TV 시청이나 수면 등이 70.7%를 차지한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외 여행, 자전거와 번지점프·암벽등반·해양스포츠 등 레저스포츠, 게임, 농촌 체험 등 체험형 여가에 대한 인식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LG 경제 연구원, 2002).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전체 산업에 걸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3차 산업 위주의 새로운 일자리는 청소년층의 실업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노동부, 2002).

이렇듯 주5일 근무제로 특히 자기 계발의 시간과 가족단위의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일요일 집중됐던 관광객이 토·일요일로 분산되고 하루 관광보다는 체류형, 체험형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생활체육 관련 서비스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광일, 2003).

특히 한국노동연구원은 주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었던 89~91년(48→44시간, 고용 4.7% 증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68만개의 일자리 창출, 총 고용 5.2% 증가를 전망하였다.

(3) 레저 패턴의 변화

한국레저산업연구소(2003)의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레저시장 성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14조원에 불과했던 국내 레저시장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2004년 24조 3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06년 29조 1000억원, 2008년 34조 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는 2011년에는 40조 4000억원으로 계속 급성장 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부분별로 레저활동 참여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보면, 오락 부문에서는 경마·경정·카지노 등 사행 산업에 참여하는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관광·행락 부문에서는 국내·외 여행, 테마파크, 등산 등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스포츠 부문에서는 골프·스키·승마 등의 고급스포츠, 축구·수영 등의 일반스포츠, 수상오토바이·바나나보트·수상스키·플라이 피쉬·카이트 서핑 등의 해양스포츠 등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면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여가시간을 이용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관광공사가 2001년 연말 네티즌 1,0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응답자 1,062명 중 53.0%인 593명이 여가시간을 이용해 ‘여행을 떠나겠다.’ 고 밝혔고, 263(24.8%)명은 ‘레저·스포츠를 즐기겠다’고 답변했다.

(4) 경제 활성화

정부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실시되면, 교통난과 숙박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는 휴가를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연중휴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연중휴가제도가 본격 실시되면,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평일의 레저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제도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두 배 정도 개선될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수출여건이 회복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문화·관광, 레저, 운송업 등 서비스 산업중심의 내수증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인적자원개발,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물적 투자 유인 등으로 잠재 성장율이 증가한다(노동부, 2002).

한국노동연구원은 만약, 근로자가 휴일 증가를 직업능력개발에 활용하는 등 인적자본의 질이 제고되고 기업이 자본투입을 증대시킬 경우 국민생산은 4.7%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 해양스포츠의 이해

1) 해양스포츠의 개념

개념(概念)은 생각의 도구(道具)이지만, 현실의 이론이 머무는 숙소(宿所)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번 지어진 개념의 집(家)에 현실이 머무는 것은 일시적이다. 개념이 현실을 맞기(수용)위해서는 자기 집을 지속적으로 개조하고 새롭게 단장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현실 앞에 선 개념의 메타모르포시스(metamorphosis)적 운명이다. 개념은 현실이 영원히 안주할 집을 짓는 데는 항상 실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개념은 다른 개념적 가능성을 갈구한다. 그리고 한번 설정된 개념은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소’와 ‘논쟁의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개념의 집이 바로 그러한 대화의 장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김용석, 2001).

지삼엽(1996)은 해양스포츠를 “바다·강·호소(湖沼)에서 동력과 무동력의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이뤄지는 경쟁적(엘리트 체육)·취미적(생활체육), 또는 체계적(제도화)·비체계적(비제도화)인 스포츠형 해양스포츠와 레저형 해양스포츠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지삼엽, 2004).

사전(辭典)에서 말하고 있는 ‘해양’이라는 낱말의 개념은 ‘넓고 큰 바다’이다. 그러나 앞의 개념 정의에서 보통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해양스포츠’에서의 ‘해양’의 공간적 범위는 ‘바다의 경우, 인간의 문화가 미치는 공간인 가운데 해수(海水)든 담수(淡水)든 수심 70cm이상의 물(水)이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강과 호소도 해양의 범주에 포함시켜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바다의 수증기가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비(雨)가 되어 바다에 떨어지면 해수가 되는 것이고, 육지에 떨어지면 담수가 된다. 특히 담수는 강을 통해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든다. 그렇게 흘러든 담수가 해수가 되어 또다시 수증기로 증발하여 구름이 된다고 볼 때 담수, 해수는 단순한 물이 생성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의 고리를 이루고 있는 순환체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물 생성의 하위 체계인 담수, 해수에 따른 각각의 개념을 성립시켜 버리면 대중들의 인식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해양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대중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까지도 해양스포츠는 수상레저, 수상스포츠, 바다스포츠, 해양레저, 해양레저스포츠 등으로 제 각각 이었고, 그런 결과로 이를 접하게 되는 시민들은 한결같이 헷갈린다는 반응들이었다. 물론 수상레저, 바다스포츠, 해양레저, 해양레저스포츠라는 용어에 대해 해양스포츠 학계에서는 지금껏 공식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한 사실이 없었다. 있다면 얼마 전부터 관광학 분야에서 관광객들이 물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그들 나름으로 표현한다고 한 것이 그렇게 일반화되었을 뿐이다. 한강에서 즐기는 윈드서핑은 수상스포츠, 혹은 수상레저이고,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즐기는 윈드서핑을 해양레저스포츠, 해양레저 혹은 바다스포츠라 말하는 등 논리 모순을 노출시키고 있는 경우가 그 좋은 사례이다. 그들의 무책임에 의해 시민 인식에 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또 이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해양스포츠가 하나의 학문이 되어 있는 지금, 해양스포츠 전공 학자들이 적극 나서 그 모든 개념을 함축한 보다 넓은 광의적 개념의 탄생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개념 정립에 있어 어떤 개념과 개념간에 명쾌한 구분이 어려울 때는 큰 개념에 작은 개념이 흡수·통합되는 것은 일반적 관습(慣習)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활동 공간의 효과측면에서 보면, 최적의 공간은 바다이다. 그러나 물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편의성과 효과성을 놓고 보면, 당연히 강과 호소도 차선의 공간이 된다. 따라서 제 각각의 해양스포츠 개념에 대한 시민 인식의 혼선 예방과 활동의 최적성, 그리고 활동공간의 규모 측면만 놓고 봐도 내수면인 강과 호소는 해양이라는 큰 개념에 수용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게다가 운동이 만들어진 의도나 목적을 중심으로 검토한 운동문화 분류에 의하면, 해양스포츠는 규정과 규칙을 지키는 가운데 상대와 겨루는 기능스포츠이고, 또 인간이 아닌 자연에의 도전, 혹은 자연에 순응하거나 자연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에 따르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극복스포츠이기도 하다(지삼엽외, 2004). 이를테면 해양스포츠는 한 수레의 두 바퀴인 기능스포츠와 극복스포츠라는 양면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개념을 비약시키는 ‘환원주의(還元主義)’ 입장에서 스포츠형(기능스포츠) 해양스포츠만을 생각하여 이를 해양스포츠라고 말하는 것도 설득력이 희박하지만, 레저형(극복스포츠) 해양스포츠만을 염두에 두고 해양레저, 혹은 해양레저스포츠라고 말하는 것도 공감하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괴테는 “최고의 표현은 그것이 현실성과 경합할 때이다”라고는 했다. 그러나 앞의 경우와 같이 서로 엉키는 영역, 즉 맥락은 배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배타적이거나 정언적 명제로서의 이분법은 분명 곤란하다. 특히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도 스포츠라는 용어 개념을 챔피언(엘리트)스포츠를 대변하는 보통명사로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지 않는 경향이 우세한 가운데 꼭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만 챔피언스포츠, 생활스포츠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대한체육회 역시 지난해(84회) 전국체육대회 전시종목으로 ‘암벽타기’를 채택한 가운데 2004년 11월 현재 진행 중인 ‘전국체육대회 참가종목 개선방안 연구’도 앞으로 레저형 생활스포츠

도 정식종목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들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 사실 등등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원주의에 따른 스포츠형과 레저형, 그리고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념이 이어져 있는 연관과 함께 서로 섞이는 영역, 그리고 최근 학계나 체육계의 경향성도 주목하는 등 총체적으로 ‘맥락주의(脈絡主義)’를 취하는 입장이 필요하고, 또한 한번 설정된 개념은 다른 개념적 가능성을 갈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있어서 해양스포츠의 현실적 개념은, 앞에서 열거한 그 모든 요소들을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맥락주의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지삼업의 ‘해양스포츠’ 개념 정의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의 경우는 물과 관련된 스포츠를 모두 수상스포츠(aquatic sports)라고 지칭하고 있는 가운데 물과 관련된 생활체육은 상당한 수준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국내는 국정교과서에서 지금껏 외국과 마찬가지로 수상스포츠(aquatic sports)라고 규정하고 있는 형편이다(지삼업, 1999). 그러나 수상(水上)스포츠라는 용어는 스포츠잠수와 같은 수중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성립된 개념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전시대의 개념임이 확연해 진다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외국에서 지금껏 앞 시대의 개념인 ‘수상스포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금과옥조로 고집하는 이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스포츠문화 사대에 다름 아닐 것이다.

해양스포츠는 물에서 각종 장비를 이용하는 가운데 단순한가 하면 때로는 복잡한 기술들이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해양스포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높은 효과를 가져다준다. 복잡한 생활에 쫓기고 있는 현대인의 생활의 질을 윤택하게 해주며 육체적 건강과 정서 순화,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는 완전스포츠라 할 수 있다(지삼업, 2000).

2) 장비 특성 및 제도화(운동문화)별 분류

해양스포츠는 바다수영 한 종목만 져혀두면, 모두라 해도 좋을 만큼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이뤄지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장비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분류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운동문화별로 대별할 수도 있다. 장비의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동력 해양스포츠와 무동력 해양스포츠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운동문화별로 분류하면, 레저형(극복스포츠) 해양스포츠와 스포츠형(기능스포츠) 해양스포츠로 나눌 수 있다.

(1) 장비의 기능적 특성에 따른 분류

ㄱ. 동력 해양스포츠

5마력 이상의 내연기관의 동력에 의존하여 활동하는 것으로서 ① 모터보트(Motor bote) ② 수상오토바이(Personal Water Craft) ③ 모터요트(Motor Yacht) ④ 호버크래프트(Air Cushion Vehicle) ⑤ 스쿠터(Scooter) ⑥ 서프제트(일명 씨크루저·Sea cruiser) 등이 있다.

동력 해양스포츠는 주 동력원이 기계적이기 때문에 엔진 또는 추진기에 대한 높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특히 기계적 운동에 따른 동력을 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속(高速)의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장비에 대한 정비와 관리, 그리고 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장비를 취급하는 장면에서도 안전성이 많이 요구된다. 한번의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또한 국내는 장비가 대부분 외국산이 점하고 있는 탓으로 가격이 매우 고가(高價)이고, 또 A/S 시에 부품에 관련된 경비도 만만찮기 때문에 이래저래 유의해서 다뤄야 한다.

나. 무동력 해양스포츠

자연을 이용하거나 순수 인력에만 의존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① 윈드서핑(Wind -surfing) ② 해양카약(Sea Kayak) ③ 해양카누(Sea Canoe) ④ 해양조정(Sea Rowing) ⑤ 수상자전거(Water Bike) ⑥ 세일링 요트(Sailing Yacht, dinghy) ⑦ 수상스키(Water Ski) ⑧ 웨이크보드(Wake Board) ⑨ 스포츠 잠수(스킨다이빙-breath-hold diving, 스쿠버다이빙-scuba diving) ⑩ 보트낚시(Boat Fishing) ⑪ 바다수영 ⑫ 해양래프팅 ⑬ 바디보드(Body Board) ⑭ 서핑(Surfing) ⑮ 니보드(Knee Board) ⑯ 아웃트리거 카누(Outrigger Canoe) ⑰ 페러세일링(Para Sailing) 카이트보드 등이 있다.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니보드, 페러세일링은 동력기구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해양스포츠이므로 동력 해양스포츠로 분류하여야 하나 장비의 특성상 무동력으로 분류하였다.

무동력 해양스포츠는 움직이는 동력이 자연의 바람이나 파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동력의 해양스포츠 종목보다 육체적인 효과는 매우 높다. 또한 동력 종목에 비해 장비의 가격이 저렴하고 이동이 편리하다.

무동력 해양스포츠는 혼자 하는 것이 대부분 이어서 자신의 건강 유지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더없이 좋은 스포츠이다. 또한 환경을 중요시한 21세기에 걸 맞는 자연·환경 친화적인 스포츠이다. 해양래프팅의 경우, 여러 사람(6~10명)이 한 팀이 되어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해양스포츠이기 때문에 팀원들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으며,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협동심도 길러준다.

(2) 제도화 및 비제도화 별 분류

ㄱ. 제도화(스포츠형) 해양스포츠

규정과 규칙을 지키는 가운데 상대와 기능이나 재능을 가지고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형 혹은 기능형 해양스포츠는 다음과 같다.

바다 위를 거침없이 질주하며 경주를 하는 수상오토바이(Personal water craft), 바다를 항해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세일 트림, 범주 등)과 바다에 대한 지식을 요하는 세일링 요트, 바다와 강, 호소 등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기술과 범주 능력을 겨루는 윈드서핑, 바다에서 여러명 또는 한·두 명이 노를 저어서 경기를 하는 해양카누·해양카약·해양조정·해양래프팅·아웃트리거 카누·갈매기 선, 모타보트에 로프를 매어 자신의 기술을 마음껏 선보이는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등이 있다.

ㄴ. 비제도화(레저형) 해양스포츠

자연에 순응하거나 자연을 극복하기 위하여, 혹은 인간이 아닌 자연에 도전하기 위한 극복스포츠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저형 해양스포츠는 다음과 같다.

파도의 힘으로 추진되는 서핑·바디보드, 바다 속을 탐험하는 스포츠 잠수, 물 위에서 자전거를 탈수 있는 수상자전거, 모터보트에 연(낙하산)을 달고 물위에서 즐기는 패러세일링,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할 수 있는 바다낚시, 바다의 파도를 보면서 파도와 호흡하며 수영하는 바다수영, 이밖에 파워보트, 호버크래프트, 스쿠트, 서프제트, 카타말란 등이 있다.

3) 해양스포츠의 기능

해양스포츠는 자연·모험적인 스포츠이며, 오늘날 노동, 가정생활,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해양스포츠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스포츠 활동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둘째, 해양스포츠활동은 건강증진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작업의 단조로움과 반복, 사회에서의 반복되는 생활, 노동의 자동화로 인한 인간소외와 자기상실 등의 정신적(고독, 욕구불만, 좌절감, 정서불안 등)·육체적(피로, 질병 등)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

넷째, 자신의 직업과 관계없이 취미, 특기를 살릴 수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 서 창조적인 삶을 영위하며, 해양스포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과 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섯째, 해양스포츠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하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길러주며,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다. 더구나 개인간, 단체간의 벽을 허물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시켜준다. 또한 집단적인 해양스포츠 활동은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3. 생활체육측면에서 본 해양스포츠

21세기 여가문화 시대인 지금, 생활체육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절대적인 요소이자, 세계적인 추세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생활체육은 유아들의 발육을 도와주고,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제공해 주며, 중·장년층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증진을, 노년층에게는 삶의 의욕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생활체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건강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생활체육을 통해 얻어지는 건강은 가정의 행복을 이끌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기저가 되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에는 국민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간, 계층간의 화합을 이루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국민적인 에너지를 북돋아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국민생활체육협의회, 2004).

스포츠는 그 밑바닥에 유희성과 기술성을 지니고 있다. 즉 어떤 사람에게 스포츠가 단순한 오락(즐기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겐 진지한 노력의 대상(경쟁 활동)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스포츠에는 게임 및 스포츠, 야외 활동, 예술적 운동, 건강 운동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1) 해양스포츠의 현황

현재 국내에서 선호되고 있는 해양스포츠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수상스키,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플라이 피쉬, 카이트 서핑 등은 특히 선호도가 높다. 관련된 강습업체만 해도 약 1천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관련된 종사자 수는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강습업체는 강이나 호소에 국한되어 있다.

해양스포츠 동호인 수는 약 10만명 정도에 이른다(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이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도 연 평균 10회 정도가 발생한다. 이렇듯 안전사고 발생율이 높아 우려되는 측면도 일부 있지만, 해양스포츠를 한번쯤 경험해 본 사람은 해양스포츠의 매력에 매료되어 해양스포츠로의 사회화가 활발한 추세이다.

해양스포츠는 단순한 자기 취미적·목적적 활동으로서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과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서 자기 성찰 및 스포츠효과를 찾을 수 있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2) 국내 해양스포츠의 문제점

국내 해양스포츠 대중화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부족한 해양스포츠 시설

해양스포츠는 대부분 물을 활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물이 있는 어디라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스포츠이다.

수영만의 경우 부산광역시 도심내에 위치하여 시장성이 높은 반면 운영주체인 부산광역시의 안목 빈곤으로 경제적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말에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는 사람들 또한 해양스포츠를 즐기기보

다는 인라인 스케이트 등 육상스포츠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대변해 주듯이 향후 해양공간은 해상 도시, 공항, 저장기지, 해상공원 등 새롭고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어 기술 개발에 따라 그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2) 고가의 장비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력은 매우 뛰어나면서도 불구하고 해양스포츠 장비는 국내에서 제조하지 않고 외국에서 만들어 진 장비를 높은 관세를 붙여서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가의 장비는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있어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비 자체가 외국의 기술로 되어 있어 수리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양스포츠 장비의 국산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조선 국가로서 많은 부분 해양스포츠 장비 개발을 통하여 고 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3) 관련 프로그램의 부족

전국적으로 친수공간을 이용한 축제가 많이 있다. 해변은 축제의 주요 무대가 되며 그 성격 또한 물을 컨셉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는 하나같이 프로그램 빈약으로 인해 물과는 상관이 없는 먹거리 홍보와 일반 문화 공연 등이 축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해양축제인데도 불구하고 해양스포츠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올해(2004)로 10회 째를 맞는 거제시의 ‘바다로 세계로’ 프로

그럼은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우리나라 해양스포츠 축제 발전 방향에 좋은 전범(典範)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은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계절스포츠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시즌(Out of season)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실내원드서핑장을 비롯하여 해양스포츠 축제를 다수 개발해야 한다.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해안의 관광단지를 개선하여 수족관, 해양박물관, 마리나(보트계류장), 회의시설, 각종 위락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고루 갖춰지고 요트, 잠수정, 유람선 등의 각종 장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런 시설들은 도입에 어려운 점이 많으나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투자를 하여 설립이 된다면 연중 많은 수용인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4) 관련 정책

현대사회는 산업이 고도로 발달되고, 전문화되면서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스포츠가 활성화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지삼업, 1999a).

- 국민 소득 15,000S이상 되면 스포츠에 대한 선호도가 자연히 자연·모험스포츠인 해양스포츠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 국민소득은 미약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관광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 해양스포츠를 특별히 육성하는 경우이다.
- 사회적 여건은 양호하지만 자연환경이 해양스포츠를 즐기기에 열악하여 정부 및 민간차원의 막대한 투자를 통해 해양스포츠 단지(프랑스의 마리나 개념)나 보트계류장 조성 등 해양스포츠 인프라 인위적 환

경을 조성하여 활성화시키는 경우 등이다.

(5) 안전법규 및 안전성

안전성과 스포츠의 대중화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양스포츠의 경우 일부 조사된 자료만으로 사고율을 가늠하기란 어렵지만 대중화된 축구나 야구 등의 스포츠가 1%대의 낮은 사고율을 보이듯이 검증된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00년 2월 9일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한 면허제도,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준수의무, 수상레저사업자의 등록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발효되었다(법률 5910호).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2004년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일반남·여로서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는 성인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양스포츠를 경험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해양스포츠 활동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일반 조사대상 집단은 일차 표집된 조사대상 250명 중 응답 내용이 일부 불성실하거나 미흡한 6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244명을 최종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은 123명이고, 미실시 집단은 121명이다.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현황

구 분	주5일 근무제	빈도(명)	백분율(%)
직장인	실 시	123	50.4
	미 실시	121	49.6
	합 계	244	100.0

2. 연구설계

1) 연구 모형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 설계 모형은 <표 3>과 같다.

<표 3> 주5일 근무제가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

독립변인	종속변인	
주 5 일 근무제	해양스포츠	참여 종목도
		종목 활성화도
		사용되어지는 금액
		활성화 장애 요소
		선호도
		만족도

<표 3>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함으로써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모형으로서 독립변인은 주5일 근무제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인으로서는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양스포츠 참여 종목도, 해양스포츠 종목 활성화도, 해양스포츠 활성화 장애 요소,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선호도,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만족도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인인 주5일 근무제의 실시 유무를 통해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설문지의 구성

이 연구에서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사용한 설문지는 여가·문화학회/MBC공동기획“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직장인 생활변화에 대한 조사”와 모창배(1993)의 “여가활동 참여 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그 외 이기봉(1996), 김문애(2000)등이 사용한 문항들을 참고하여 이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검토하여 연구 취지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표 4> 설문지의 구성 지표와 구성내용

변인	구 성 지 표	구 성 내 용	문항수
배경 변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최종학력, 월 소득	5문항
독립 변인	주5일 근무제	실시유무	1문항
종속 변인	해양스포츠 참여 종목	참여 종목	1문항
	해양스포츠 활동	활동여부	1문항
	해양스포츠활동에 사용되어지는 금액	비용	1문항
	해양스포츠 활성화 장애요소	시간, 경제, 시설, 프로그램, 정보, 교통	6문항
	해양스포츠 활동 선호도	관심, 비용, 시간, 흥미, 안전, 건강, 자아실현, 기분전환, 사교, 가족, 호기심	11문항
	해양스포츠 활동 만족도	건강, 사교, 가족, 건강, 기분전환	5문항

설문지의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표 4>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5문항, 주5일 근무제 1문항, 해양스포츠 참여 종목 1문항, 해양스포츠 활동 문항, 해양스포츠에 사용되어지는 금액 1문항, 해양스포츠 활성화 장애 요소 6문항,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선호도 11문항,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만족도 5문항 등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설문지의 타당도

이 연구에서 사용될 설문지의 타당도는 여가·문화학회/MBC공동기획에서 주최한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직장인 생활변화에 대한 조사”와 모창배(1993)의 “여가활동 참여 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그 외 이기봉(1996), 김문애(2000)등이 사용한 사항들을 토대로 작성하여, 설문에 대한 타당도 및 문항의 적합성을 위해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여 수정 보완하는 등 사전예비 작업을 거친 후 요인분석기법(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설문지의 타당도를 최종 검증하여 타당도를 인정받았다.

4) 설문지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될 설문지의 신뢰도는 사전에 작성한 설문지에 대한 신뢰도 및 문항의 적합성을 논의하여 수정보완하고 예비조사를 거친 후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검정하는 크론바하의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이용하였다. Cronbach's Alpha(α)의 검사는 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신뢰도 추정치인 문항 내적 합치도를 구하는 신뢰

도 방법 중의 하나이다(채서일, 1980).

<표 5> 설문지에 대한 신뢰도 분석

구 분	변 인	Cronbach's α
해양스포츠 참여 종목	참 여 종 목	.7773
해양스포츠 활동	활동여부	.7742
해양스포츠 활동에 사용되어지는 금액	비용	.7719
해양스포츠 활성화 장애 요소	시간, 경제, 시설, 프로그램, 정보, 교통	.7746
해양스포츠 활동 선호도	관심, 비용, 시간, 흥미, 안전, 건강, 자아실현, 기분전환, 사교, 가족, 호기심	.7835
해양스포츠 활동 만족도	건강, 사교, 가족, 건강, 기분전환	.7775
전 체	해양스포츠 참여 종목 활동여부, 비용 해양스포츠 활성화 장애 요소 해양스포츠 활동 선호도 해양스포츠 활동 만족도	.7746

Cronbach's α의 검사 방법으로 얻어진 설문지의 신뢰도 계수는<표 5>와 같이 해양스포츠 참여 종목 .7773, 해양스포츠 활동 .7742, 해양스포츠 활동에 사용되어지는 금액 .7719, 해양스포츠 활성화 장애 요소 .7746, 해양스포츠 활동 선호도 .7835, 해양스포츠 활동 만족도 .7775로 각각 나타났다. 문항전체의 신뢰도는 .7746으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3. 연구절차

가. 문헌 연구 및 논제 설정 : 2004. 3. 1 ~ 2004. 4. 30

나. 자료 수집 및 문헌 연구 : 2004. 4. 15 ~ 2004. 10

다. 논문계획서 작성 : 2004. 5. 1 ~ 2004. 5. 31

라. 설문지 작성 및 조사 : 2004. 6. 1 ~ 2004. 9. 15

마. 자료처리 및 통계처리 : 2004. 9. 16 ~ 2004. 10. 15

바. 논문 작성 : 2004. 9. 16 ~ 2004. 10. 25

4. 자료분석

<표 6> 자료분석 방법

분석 방법	분석 기법
기술 통계 분석	단순빈도분석 (Frequencies)
	교차분석 (Crosstabs)
평균 비교 분석	독립표본 T검증 (T-test)

주5일 근무제가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분석방법은 위의 <표 6>과 같다.

해양스포츠 활동자로 파악된 25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제작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회수하였다. 응답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6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분석 가능한 자료들을 코딩하였다. 코딩이 완료된 자료들은 WINDOW SPSS Version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설문지의 신뢰도 파악은 Cronbach's α 의 계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변수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해양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으로는 Duncan's method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95%로 나타났다.

IV. 연구 결과 및 고찰

1. 연구 결과

1)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 종목

<표 7>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 종목

N=244

구 분	주5일	N	평 균	표준편차	t-값	p-value
수상오토바이	실 시	123	0.22	0.42	1.8	0.00
	미 실시	121	0.13	0.34		
모터보트	실 시	123	0.37	0.49	2.6	0.00
	미 실시	121	0.22	0.42		
해양래프팅	실 시	123	0.24	0.43	1.91	0.00
	미 실시	121	0.14	0.35		
스포츠잠수	실 시	123	0.12	0.33	0.57	0.26
	미 실시	121	0.1	0.3		
윈드서핑	실 시	123	0.26	0.44	0.37	0.46
	미 실시	121	0.24	0.43		
바디보드	실 시	123	0.07	0.26	1.4	0.00
	미 실시	121	0.03	0.18		
핀 수영	실 시	123	0.19	0.39	3.13	0.00
	미 실시	121	0.06	0.23		
바나나보트	실 시	123	0.58	0.5	1.27	0.09
	미 실시	121	0.5	0.5		
서핑	실 시	123	0.06	0.23	-0.3	0.55
	미 실시	121	0.07	0.25		
수상스키	실 시	123	0.15	0.35	1.34	0.01
	미 실시	121	0.09	0.29		
바다수영	실 시	123	0.39	0.49	-1.92	0.02
	미 실시	121	0.51	0.5		

cont.

웨이크보드	실시	123	0.03	0.18	-1.9	0.00
	미 실시	121	0.09	0.29		
조정	실시	123	0.03	0.18	1.34	0.01
	미 실시	121	0.01	0.09		
카누카약	실시	123	0.02	0.15	0.43	0.39
	미 실시	121	0.02	0.13		
요트	실시	123	0.12	0.33	-0.61	0.22
	미 실시	121	0.15	0.36		

<표 7>은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 실시 집단의 해양스포츠 참여 종목에 대한 것으로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 123명, 미 실시 집단 121명에 비해 더 많은 표본이 추출되었다.

(1) 수상오토바이에 대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0.22 ± 0.42 , 미 실시 집단 0.13 ± 0.34 로 실시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도 역시 0.00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시하는 집단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모터보트에 대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0.37 ± 0.49 , 미 실시 집단 0.22 ± 0.42 로 실시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도 역시 0.00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시 집단이 모터보트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해양래프팅에 대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0.24 ± 0.43 , 미 실시 집단 0.14 ± 0.35 로 실시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유의도 역시 0.00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시 집단이 해양래프팅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스포츠잠수에 대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0.12 ± 0.33 , 미 실시 집단 0.1 ± 0.30 으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 그러므로 실시 집단과 미 실시 집단은 비슷한 참여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5) 윈드서핑에 대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0.26 ± 0.44 , 미 실시 집단 0.24 ± 0.43 으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 그러므로 실시 집단과 미 실시 집단은 비슷한 참여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6) 바디보드에 대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0.07 ± 0.26 , 미 실시 집단 0.03 ± 0.18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실시 집단이 바디보드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7) 핀수영에 대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0.19 ± 0.39 , 미 실시 집단 0.06 ± 0.23 으로 실시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유의도 역시 0.00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시 집단이 핀수영 활동을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8) 바나나보트에 대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0.58 ± 0.5 , 미 실시 집단 0.5 ± 0.5 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 그러므로 실시 집단과 미 실시 집단은 비슷한 참여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9) 서핑에 대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0.06 ± 0.23 , 미 실시 집단 0.07 ± 0.25 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 그러므로 실시 집단과 미 실시 집단은 비슷한 참여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0) 수상스키에 대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0.15 ± 0.35 , 미 실시 집단 0.09 ± 0.29 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실시 집단이 수상스키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 바다수영에 대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0.39 ± 0.49 , 미 실시 집단 0.51 ± 0.5 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 실시 집단이 바다수영을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웨이크보드에 대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0.03 ± 0.18 , 미 실시 집단 0.09 ± 0.29 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 실시 집단이 웨이크보드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조정에 대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0.03 ± 0.18 , 미 실시 집단 0.01 ± 0.09 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실시 집단이 조정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 카누카약에 대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0.02 ± 0.15 , 미 실시 집단 0.02 ± 0.13 으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 그러므로 실시 집단과 미 실시 집단은 비슷한 참여 경향을 나타낸다.

(15) 요트에 대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0.12 ± 0.33 , 미 실시 집단 0.15 ± 0.36 으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 그러므로 실시 집단과 미 실시 집단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있다.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이 미실시 집단보다 해양스포츠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을 것이다에 대한 가설에 대하여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해양 래프팅, 핀 수영, 수상스키, 조정, 바디보드는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이 해양스포츠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잠수, 윈드서핑, 바나나보트, 서핑, 카누카약은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바다수영과 웨이크보드, 요트는 미실시 집단이 해양스포츠를 더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이 미실시 집단보다 해양스포츠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2) 해양스포츠 활동 참여 여부

<표 8> 해양스포츠 활동 참여 여부

참여 여부	주5일	n	평균	표준편차	t-값	p-value
	실 시	123	3.85	1.16	2.62	.15
	미실시	121	3.48	1.02		

<표 8>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였을 경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 전보다 해양스포츠 활동에 더 많이 참여 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85 ± 1.16 , 미실시 집단 3.48 ± 1.02 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두 집단 모두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였을 경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 전보다 해양스포츠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3) 해양스포츠 활동에 사용되어지는 금액

<표 9> 해양스포츠 활동에 사용되어지는 금액

금 액	주5일	N	평균	표준편차	t-값	p-value
실시 전	실 시	123	1.32	0.58	1.43	.037
	미 실시	121	1.21	0.54		
실시 후	실 시	123	1.41	0.68	0.92	.201
	미 실시	121	1.33	0.61		

<표 9>는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 실시 집단의 주5일 근무제 실시 후 해양스포츠 활동에 사용하는 금액을 나타낸 것으로 10만원 미만, 10만원~20만원, 20만원~30만원, 30만원 이상에서 보면 실시 전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1.32 ± 0.58 , 미 실시 집단은 1.21 ± 0.54 로 나타났으며, 실시 후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1.41 ± 0.68 , 미 실시 집단 1.33 ± 0.61 로 나타났다. 실시 전과 실시 후의 평균은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실시 전보다 실시 후가 조금 높게 나타났으므로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 되면 해양스포츠 활동에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위의 해양스포츠에 사용되어지는 금액은 해양스포츠 활동 외의 기타 다른 부대 비용도 포함된 금액이다.

<표 10> 주5일 근무제 미실시 집단

(단위 : 명)

금 액	실시 전	실시 후
10만원 미만	101	89
10만원 ~20만원	15	25
20만원 ~30만원	4	6
30만원 이상	1	1
계	121	121

<표 10>은 주5일 근무제 미실시 집단이 미실시 때와 실시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의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사용 금액을 나타낸 것으로 10만원 미만의 경우 실시 전 101, 실시 후 89명으로 나타났다. 10만원~20만원의 경우 실시 전 15명으로 실시 후 25명으로 나타났다. 20만원~30만원 경우에도 실시 후 6명, 실시 전 4명으로 비교적 차이는 없지만 실시 후가 더 높게 나타났다. 30만원 이상의 경우 각 1명으로 나타났다.

<표 11>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

(단위 : 명)

금 액	실시 전	실시 후
10만원 미만	89	83
10만원 ~20만원	31	33
20만원 ~30만원	1	4
30만원 이상	2	3
계	123	123

<표 11>은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실시 전과 실시 후의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사용 금액을 나타낸 것으로 10만원~20만원 미만의 경우 89명, 실시 후 83명으로 나타났다. 10만원~20만원의 경우 실시 전 31명, 실시 후 33명으로 나타났으며, 20만원~30만원의 경우 실시 전 1명, 실시 후 4명, 30만원 이상의 경우 실시 전 2명, 실시 후 3명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면 여가에 대한 활동 시간이 증대되므로 해양스포츠 활동에 사용되어지는 금액이 주5일 근무제 실시 전보다 실시 후에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해양스포츠 활성화 장애 요소

<표 12>는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이 느끼는 해양스포츠 활성화 장애 요소를 나타낸 것으로 다음과 같다.

<표 12> 해양스포츠 활성화 장애 요소

문제점	주5일	N	평 균	표준편차	t-값	p-value
경제적 부담	실 시	123	3.29	1.13	-1.87	.258
	미 실시	121	3.55	1.10		
시간부족	실 시	123	3.41	1.09	-2.57	.001
	미 실시	121	3.74	0.95		
접근성 불편	실 시	123	2.92	1.09	-2.85	.073
	미 실시	121	3.30	0.98		
해양스포츠 시설 부족	실 시	123	3.61	0.97	-1.02	.335
	미 실시	121	3.74	1.08		
해양스포츠 프로그램 부족	실 시	123	3.65	0.97	-.803	.862
	미 실시	121	3.75	1.01		
해양스포츠 정보 부족	실 시	123	3.78	0.96	-1.06	.959
	미 실시	121	3.91	0.93		

(1) 경제적 부담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29 ± 1.13 , 미실시 집단

3.55±1.10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다. 그러나 미 실시 집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미 실시 집단이 실시 집단보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간 부족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41±1.09, 미 실시 집단은 3.74±0.95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유의수준 0.01로 유의한 차는 있었다. 그러므로 미 실시 집단이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3) 접근성 불편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2.92±1.09, 미 실시 집단은 3.30±0.98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유의한 차는 없다. 그러나 미 실시 집단이 실시 집단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므로 미 실시 집단이 접근성 결여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해양스포츠 시설 부족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61±0.94, 미 실시 집단은 3.74±1.08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유의한 차는 없다. 그러나 미 실시 집단이 실시 집단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미 실시 집단이 해양스포츠 시설의 부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5) 해양스포츠 프로그램 부족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65 ± 0.97 , 미실시 집단 3.75 ± 1.01 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유의한 차는 없다. 그러나 미실시 집단이 실시집단보다 미실시 집단이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의 부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6) 해양스포츠 정보 부족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78 ± 0.96 , 미실시 집단 3.91 ± 0.93 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유의한 차는 없다. 그러나 미실시 집단이 실시 집단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미실시 집단이 해양스포츠 정보 부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은 시간부족에서만 유의한 차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경제적 부담, 접근성 불편, 해양스포츠 시설 부족, 해양스포츠 프로그램 부족, 해양스포츠 정보부족에서는 유의한 차가 없다고 나타났으나 실시 집단보다 미실시 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이 미실시 집단보다 해양스포츠 활성화 장애요소가 적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함으로써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해양스포츠의 시설, 해양스포츠 프로그램, 해양스포츠 정보도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더 많은 해양스포츠 시설과 해양스포츠 프로그램

램, 해양스포츠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아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선호도

<표 13>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선호도

선호도	주5일	N	평 균	표준편차	t-값	p-value
관심	실 시	123	3.19	1.05	-.023	.668
	미 실시	121	3.19	1.07		
비용	실 시	123	2.37	0.84	.456	.093
	미 실시	121	2.32	0.92		
시간	실 시	123	2.93	1.02	.904	.654
	미 실시	121	2.81	1.00		
흥미	실 시	123	3.72	0.83	2.195	.084
	미 실시	121	3.48	0.90		
안전	실 시	123	2.51	0.91	.580	.546
	미 실시	121	2.45	0.87		
체력	실 시	123	3.57	0.89	1.216	.901
	미 실시	121	3.43	0.90		
자아실현	실 시	123	3.62	0.82	1.356	.025
	미 실시	121	3.46	0.97		
스트레스해소	실 시	123	3.96	0.79	1.231	.059
	미 실시	121	3.83	0.89		
대인관계	실 시	123	3.57	0.92	.810	.332
	미 실시	121	3.47	0.98		
가족화합	실 시	123	3.36	0.91	1.120	.739
	미 실시	121	3.22	0.97		
모험 스포츠	실 시	123	3.78	0.93	1.182	.013
	미 실시	121	3.55	1.02		

<표 13>은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 실시 집단의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낸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관심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19 ± 1.05 , 미실시 집단 3.19 ± 1.07 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해양스포츠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2) 비용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2.37 ± 0.84 , 미실시 집단 2.32 ± 0.92 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두 집단 모두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비용이 부담되므로 선호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시간적 여건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2.93 ± 1.02 , 미실시 집단 2.81 ± 1.00 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낮게 나타났으나,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는 시간적 여건이 미실시 집단이 더 낮게 나타났으므로, 미실시 집단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흥미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72 ± 0.83 , 미실시 집단 3.48 ± 0.90 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해양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재미 때문예가 실시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실시집단이 흥미와 재미 때문에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5) 안전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2.51 ± 0.91 , 미실시 집단 2.45 ± 0.87 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안전이 두 집단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모두 해양스포츠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체력증진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57 ± 0.89 , 미실시 집단 3.43 ± 0.90 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체력 증진이 실시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미실시 집단보다 실시 집단이 체력의 증진을 위해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자아실현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 평균 및 표준편차는 3.62 ± 0.82 , 미실시 집단 3.46 ± 0.97 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시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실시집단이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해양스포츠 활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스트레스 해소(기분전환)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평균 3.96 ± 0.79 , 미실시 집단 3.83 ± 0.89 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시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실시 집단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해양스포츠 활동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9) 대인관계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57 ± 0.92 , 미실시 집단 3.47 ± 0.98 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실시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실시집단이 대인관계를 위해 해양스포츠 활동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가족 화합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36 ± 0.91 , 미실시 집단 3.22 ± 0.97 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실시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실시 집단이 가족 화합을 목적으로 해양스포츠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 모험 스포츠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78 ± 0.93 , 미실시 집단 3.55 ± 1.02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시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실시 집단이 모험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해양스포츠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5일 근무제 실시집단과 미실시 집단의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선호도에서 자아실현과 모험스포츠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 유의한 차는 없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집단이 실시하지 않는 집단보다 해양스포츠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실시집단이 미실시 집단보다 선호도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실시집단이 해양스포츠 활동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6)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만족도

<표 14>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주5일	N	평 균	표준편차	t-값	p-value
체력증진	실 시	123	3.76	0.64	1.503	.049
	미 실시	121	3.66	0.76		
관계증진	실 시	123	3.80	0.73	-.053	.817
	미 실시	121	3.81	0.77		
화합증진	실 시	123	3.56	0.83	.548	.673
	미 실시	121	3.50	0.79		
자아실현	실 시	123	3.73	0.65	.135	.066
	미 실시	121	3.72	0.81		
기분전화	실 시	123	4.07	0.66	.738	.243
	미 실시	121	4.01	0.64		

<표 14>는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의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체력증진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76 ± 0.64 , 미실시 집단

3.66±0.76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49에서 유의한 차가 있다. 그러므로 미 실시 집단보다 실시 집단이 해양스포츠 활동을 한 후 건강과 체력의 유지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관계증진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80±0.73, 미 실시 집단 3.81±0.77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두 집단 모두 해양스포츠 활동을 한 후 사교 및 친목 도모, 동료간의 우의증진 등의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가족 화합증진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56±0.83, 미 실시 집단 3.50±0.79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시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미 실시 집단보다 실시 집단이 해양스포츠 활동을 한 후 가족의 화합 증진에 더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자아실현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73±0.64, 미 실시 집단 3.72±0.81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두 집단 모두 해양스포츠 활동을 한 후 운동의 기술

습득, 정신력 강화 등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스트레스 해소(기분전환)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4.07 ± 0.66 , 미실시 집단 4.01 ± 0.64 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두 집단 모두 해양스포츠 활동을 한 후 기분 전환, 스트레스 해소, 일상생활의 지루함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의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서 체력증진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 유의한 차는 없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이 미실시 집단보다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더 클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실시 집단이 미실시 집단보다 평균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므로 실시 집단이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2. 고찰

1)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 종목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해양래프팅, 윈 수영, 수상스키, 조정, 바디보드는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이 해양스포츠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잠수, 윈드서핑, 바나나보트, 서핑, 카누카약은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바다수영과 웨이크보드, 요트는 미실시 집단이 해양스포츠를 더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이 미실시 집단보다 해양스포츠 활동을 더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해양스포츠 활동을 더 많이 할 것이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해양스포츠의 가치는 높게 인식되나 실제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가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도 낮은 수준이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섬나라인 이점을 살려 어릴 때부터 해양스포츠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로 인해 청소년,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해양스포츠를 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영국과 일본의 해양스포츠는 국민 생활체육으로서 선호도가 대단히 높은 가운데 해양스포츠 장비 산업 또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우리나라 보다 해양스포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해양스포츠에 참가한 사람은 해양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될 경우 해양스포츠 활동의 참가를 지속하게 된다. 이것은 첫째, 해양스포츠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본질적인 즐거움으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극복함으로써 성취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둘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만족감이다. 셋째, 해양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각 단체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

다(지삼업 외 12명, 2004).

해양스포츠가 인간생활에 미치는 이익은 과학적으로나 산술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간관계의 원활성과 사회 각 조직별로 추구하는 목표구현에 매우 효율성이 있는 구심점 및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 실시 전의 해양스포츠 활동은 개개인의 참여보다는 접근하기 어려운 스포츠로 인식되어 특정 활동자에 의한 대리 만족을 얻는 경우였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실시 후 시간적 여유가 늘어나 남녀노소 누구나 직접 참여하는 것이 증대(增大)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정부는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큰 제약인 시간적인 요소를 없애야 할 것이다.

2) 해양스포츠 활동 참여 여부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면 혹은 실시가 되었다면 해양스포츠 활동에 더 많이 참여 할 것이라는 것에 두 집단 모두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는 해양스포츠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건강을 잃으면 천하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의미해 볼 때 우리에게 진정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건강이며 해양스포츠는 이것을 만족시켜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해양스포츠의 매력을 이해하고 조금 더 나은 활동을 하기 위해 참여자 수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보아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 해양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단지형 보트계류장 개발,

해양스포츠와 육상스포츠의 자연스러운 연결망 구축, 더욱 쾌적한 해양스포츠 체험관광을 위한 시설의 확충, 해양스포츠를 위주로 한 해양축제의 다양화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인들의 해양스포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므로 해양스포츠의 개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이 필요하며,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정규적인 해양스포츠 세미나 및 해양스포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각 단체나 대학에서 전문 지도자의 양성과 올바른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해양스포츠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각종 상해 및 안전사고에 대해 해양스포츠 활동자들이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양스포츠에 대한 전문적인 보험제도와 사업법, 그리고 안전 법규의 모색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스포츠 장비는 등록법이 부재하여 자기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몇 십 년 전에 마련된 유·도선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5톤 이하의 보트는 등록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결국 해양스포츠 사업 및 활동을 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된다. 결국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트등록법 및 안전검사, 그리고 장비(보트) 형식승인제도의 검토가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3) 해양스포츠 활동에 사용되어지는 금액

주5일 근무제 실시 전의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을 비교해 보면 실시 집단이 미실시 집단보다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금액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시 후의 실시집단과 미실시 집단을 비교해 보면 실시 집단이 미실시 집단보다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금액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1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5일 근무제 미실시 집단은 주5일 근무제가 실시가 된다면 10만원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이상 30만원미만에서 증가된 현상을 보여주었으므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해양스포츠 활동에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시 집단도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20만원 이상 30만원미만, 30만원 이상에서 증가된 현상을 보여주었으므로 해양스포츠 활동에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실시하기 전보다 해양스포츠 활동에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해양스포츠 활동 자체가 많은 금액을 요하므로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해양스포츠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스포츠 활동은 국내 경기에 많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경기가 좋지 않으면 비용이 적게드는 등산, 낚시, 조깅 등의 활동을 선호하며, 경기가 회복되면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장거리 숙박여행, 리조트 방문, 모험스포츠 추구 등이 선호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한국레저산업연구소(2002)가 발표한 '여가시간 관련 시장규모 추이'에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여가시간에 지출한 금액이 2001년 82조6,504억원으로 90년의 17조3,459억원 보다는 거의 4.8배가 늘어났다. 또한 경상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90년의 9.7%에서 2002년에는 15.25%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여가시간 관련 시장규모는 크게 늘어나면서 해양스포츠업계, 해양스포츠 여행업계, 해양스포츠용품업체 등의 여가시간 관련 산업이 호황을 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하여 국내 해양스

포츠 업계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양스포츠가 다른 육상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해양스포츠 활성화 장애 요소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은 시간부족에서만 유의한 차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경제적 부담, 접근성 불편, 해양스포츠 시설 부족, 해양스포츠 프로그램 부족, 해양스포츠 정보부족에서는 유의한 차가 없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평균이 낮게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실질적으로 해양스포츠 활성화 장애 요소를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1) 경제적 부담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실시 집단보다 미실시 집단의 평균이 조금 더 낮게 나타나 미실시 집단이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더 느낀다고 볼 수 있다.

(2) 시간 부족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으나 유의한 차가 있다고 나타났다. 그러므로 실시 집단이 시간적으로 더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실시 집단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해양스포츠를 이용할 시간이 부족하고 할 수 있다.

(3) 접근성 불편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실시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나 실시 집단보다 접근성의 불편함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미실시 집단이 이동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도 한정되어 있어서 이동할 때 접근성의 불편함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할 수 있다.

(4) 해양스포츠 시설 부족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실시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나 실시 집단보다 해양스포츠 시설의 부족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실시 집단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5) 해양스포츠 프로그램 부족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높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실시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나 실시 집단보다 해양스포츠 프로그램 부족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실시 집단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접해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6) 해양스포츠 정보 부족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높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실시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나 실시 집단보다 해양스포츠 정보 부족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실시하는 집단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해양스포츠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해양스포츠는 단순 소비산업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산업 발전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지만, 해양스포츠 그 자체로도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산업임을 고려할 때 해양스포츠는 반드시 육성되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해양스포츠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해양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며, 해양스포츠 장비 및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양스포츠 활동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해양스포츠 활동을 위해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근거리의 1박 2일 코스로 해양스포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그러나 시설과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도 지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만족스러운 해양스포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 및 각 대학의 관련 전공학과와 자격연수나 지도자 교육을 통한 해양스포츠 전문지도자 양성에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해양스포츠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의 개발과 해양스포츠 산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즉 해양스포츠 산업이 소비산업이 아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미래 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해양스포츠산업이 성장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스포츠 관련된 기초통계자료도 거의 없는 실정이고 해양스포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는 성장산업인 해양스포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억제보다는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한광일, 2003).

부산의 경우 6개월을 시점으로 보고 올림픽요트경기장과 해운대·광안리·송도 등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에서 연인원 910만여명이 모터보트, 수상스키, 수상오토바이 등 10여개 종목의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5만5000명의 고용유발효과, 1조 2800억원의 직·간접적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지삼업, 2004).

또한 해양스포츠산업이 활성화되면 관광객의 증가로 신규고용 창출, 지역산업의 성장 등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에 맞추어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활성화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5)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선호도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의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선호도는 자아실현과 모험스포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외 요인은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선호도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해양스포츠 활동의 안전과 비용에서는 낮게 나타나 해양스포츠가 아직까지 위험한 스포츠이며 비싼 스포츠로 인식되어 있었다.

(1) 관심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나 유의한 차는 없었다.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다른 레저 스포츠보다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의 폭을 더 넓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활동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비용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해양스포츠에 대한 활동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는 것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는 없었다. 그러므로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스포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3) 시간적 여건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시간적 여건이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는 없었다. 그러나 실시 집단이 미실시 집단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실시집단이 해양스포츠를 하는데 시간적 여건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시간적인 제약을 없애야 할 것이다.

(4) 흥미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해양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재미 때문인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는 없었다. 그러나 실시 집단이 미실시 집단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 실시 집단이 흥미와 재미 때문에 해양스포츠 활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해양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위해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5) 안전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해양스포츠에 대한 안전이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는 없었다. 그러므로 두 집단 모두 해양스포츠는 다른 레저스포츠보다 안전하지 않아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체력증진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해양스포츠에 대한 체력증진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는 없었다. 그러나 실시 집단이 미실시 집단보다 체력증진을 위해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건강과 체력의 유지, 증진을 위해서 해양스포츠 활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자아실현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해양스포츠에 대한 자아실

현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시 집단이 자아실현을 위해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운동의 기술 습득, 정신력 강화 등 자아실현을 위해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스트레스 해소(기분전환)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해양스포츠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에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는 없었다. 그러나 실시 집단이 미실시 집단보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기분전환, 스트레스 해소 및 일상생활의 지루함의 해소를 위해서 해양스포츠 활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 대인관계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해양스포츠에 대한 대인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는 없었다. 그러나 실시집단이 미실시 집단 보다 대인관계를 위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동료 간의 우의증진, 사교 및 친목도모 등의 대인관계를 위해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가족 화합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해양스포츠에 대한 가족 화합에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는 없었다. 그러나 실시집단이 미실시 집

단보다 가족화합을 위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가족 상호간의 화합, 이해증진을 위해서 해양스포츠 활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 모험 스포츠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해양스포츠에 대한 모험적인 정신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13으로 유의한 차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실시 집단이 미실시 집단보다 모험스포츠를 위해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자연에서 모험적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해양스포츠 활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과 체력증진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수준 및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생활이 개선되면서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해양스포츠에서는 계속되는 도전을 통한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한 극복과 자연을 지배했다는 승리에서 오는 상당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해양스포츠는 타고난 스포츠적 자질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자연을 벗삼아 즐길 때 그 기쁨이 배가된다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바로 이러한 스포츠가 해양스포츠이기 때문에 누구나 해양스포츠를 통하여 성취감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양스포츠는 물에서 이뤄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변확대를 위한 계기 마련에 항상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해양스포츠의 특

성상 위험성이 다소 높아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주의를 요하는 스포츠이다.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해양스포츠 활동에 있어 안전확보에 보다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하며,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 시설물 설치, 해변의 인접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비용의 절감, 프로그램의 개발로 양보다는 질적인 해양스포츠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향후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늘어나는 여가시간과 자기성찰의 기회제공, 가족간의 화합, 대인관계 원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해양스포츠에 대한 교육환경의 개선 및 전문지도자 양성, 친수공간의 적극적 활용, 해양스포츠 동호회 육성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6)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만족도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의 평균은 체력증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체적으로 두 집단 모두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해양스포츠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해양스포츠 활동을 통해 체력증진, 관계증진, 가족화합, 자아실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1) 체력증진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해양스포츠에 대한 체력증진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는 실시 집단이 미실시 집단보다 체력증진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해양스포츠 활동이 건강과 체력의 유지,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관계증진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는 없었다. 그러나 실시 집단이 미실시 집단보다 관계증진에서 더 높은 만족을 보인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사교 및 친목도모, 동료 간의 우의증진 등의 대인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3) 가족 화합증진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는 없었다. 그러나 실시 집단이 미실시 집단보다 가족 화합증진에 더 높은 만족을 보인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해양스포츠 활동이 가족 상호간의 화합, 이해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4) 자아실현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는 없었다. 그러나 실시 집단이 미실시 집단보다 자아실현에서 더 높은 만족을 보인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해양스포츠 활동이 운동의 기술 습득, 정신력 강화 등 자아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5) 스트레스 해소(기분전환)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는 없었다. 그러나 실시 집단이 미실시 집단보다 스트레스 해소에 더 높은 만족을 보인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해양스포츠 활동이 기분전환, 스트레스 해소, 일상생활의 지루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해양스포츠는 다른 육상스포츠와는 달리 많이 접해보지 못한 스포츠이며, 주위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스포츠가 아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스포츠 관광상품은 해양스포츠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찾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스포츠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해양스포츠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게 하고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해양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경제적, 시설적, 개인적인 영향이 많이 미치므로 참가 비용의 절감, 편의시설의 확보,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있어 개인이 선호하는 특정 해양스포츠 종목이나 선호도 그리고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가 따라 해양스포츠 활동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해양스포츠의 인식전환으로 인해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심신 단련 및 자아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양스포츠 활동을 함으로써 얻게되는 혜택을 누려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주5일 근무제가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거주 20세 이상 남녀 총 244명(남자: 136명, 여성: 108명)을 대상으로 2004년 3월 1일에서 2004년 10월 25일까지 연구 검토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주5일 근무제가 해양스포츠 참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이 미실시 집단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이 해양스포츠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 모두 해양스포츠 참여 여부에 서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였을 경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 전보다 해양스포츠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나타났다.
- 3)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의 주5일 근무제 실시 후 해양스포츠 활동에 사용되어지는 금액은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의 실시 후 평균값이 실시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10만원 미만과 10만원~20만원의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면 여가 활동 시간이 증가하므로 해양스포츠에 대한 활동비용을 주5일 근무제 실시 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해양스포츠 활성화 장애요소는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은 미 실시 집단보다 시간부족 면에서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부담, 접근성 불편, 해양스포츠 시설 부족, 해양스포츠 프로그램 부족, 해양스포츠 정보부족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실시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함으로써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해양스포츠의 시설, 프로그램, 정보도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더 많은 시설, 프로그램,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아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 실시 집단의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선호도에서 평균은 실시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이 미 실시 집단보다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 실시 집단 모두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미 실시 집단 모두 해양스포츠 활

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제언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주5일 근무제의 전면 실시에 대비한 일반인들의 건전한 해양스포츠 활동 및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2011년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타 지역은 물론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및 농·어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바람직한 해양스포츠 활동을 위하여 해양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양스포츠 교육의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 3) 생활체육으로서의 해양스포츠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해양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장소 및 시설, 장비의 지원 및 안전시설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구륜희(2002),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레저스포츠 활동 선호도 분석,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p.13
- 2) 국민생활체육협의회, <http://www.sports-net.or.kr>
- 3) 김소영 · 전병유 · 유성재(2001),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노동부, p.5
- 4) 김용석(2001), 문화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푸른숲, p.27
- 5) 김종훈(2003), 주5일제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가스포츠 활성화 방
안,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6) 노동부, <http://www.molab.go.kr>
- 7)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 8) 박하정(2003), 체육교사의 해양스포츠 교육 실태 및 인식도에 관
한 연구(광주 ·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안인준(2002), 주5일 수업제가 남자 중학생의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10) 양성인(2002), 주5일 근무제가 도시근로자들의 여가생활에 미치
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p.5
- 11) 유흥주(1997). 해양스포츠와 해양력, 해양학술 세미나 발표 논문
집, 해군사관학교 해군해양연구소.

- 12) 이동근 · 한철환 · 엄선희(2003), 역사와 해양의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1
- 13) 이지평(2003), 주 5일 트렌드, p.27
- 14) 전태훈(2000), 주5일 근무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
- 15) 지삼엽(1996), 부산지역 해양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아시안게임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논문집, 제3권, 제2호.
- 16) 지삼엽(1996), 내일의 과도를 향하여(스포츠 평론집),
부산: 해원출판사.
- 17) 지삼엽(1998). 한국 해양스포츠 활성화 방안, 부경대학교 논문집
제3권 2호, pp51~52.
- 18) 지삼엽(1998). 해양스포츠, 21세기 해양대국 건설의 해법,
해양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해군사관학교 해군해양연구소, pp77~93.
- 19) 지삼엽(1999), 해양스포츠 자원론, 해원출판사, p.29, p.113
- 20) 지삼엽(1999), 해양스포츠 안전교육론, 해원출판사.
- 21) 지삼엽(2004), 스포츠과학(부산지역 해양스포츠산업 발흥에 영향
을 미치는 환경요인 분석),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p.19
- 22) 지삼엽외 12명 (2004), 새로운 스포츠사회학의 담론,
제일출판사, p.63
- 23) 채서일(1980), 사회과학 방법론(2판), 서울법문사, p.200

- 24) 한국레저산업연구소, <http://www.kolec.co.kr>.
- 25) 한국사회체육학회 학술세미나(2003),
주5일 근무제와 사회체육, p.24
- 26)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27) 한광일(2003),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국민들의 레저활동 방안,
한국레크리에이션정보센터, p.1
- 28) 해양수산부(2004),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서, p.189

부록

설문지

No.			
-----	--	--	--

주 5 일 근무제가 해양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체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으로서 ‘주 5 일 근무제가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뿐만 아니라 연구 목적 이외에는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해양스포츠 발전을 위해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연구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2004년 9 월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 전공 이 동 진

■ 해양스포츠 활동에 관한 내용

다음 문항은 해양스포츠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해당되는 곳에“ V ”표 및 적당한 말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귀하가 현재까지 체험한 해양스포츠 종목은?

수상오토바이		윈드서핑		서핑		조정	
모터보트		바디보드		수상스키		카누카약	
해양래프팅		핀 수영		바다수영		요트	
스포츠 잠수		바나나보트		웨이크보드		기 타	

3. 귀하는 현재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 ① 실시(격주제 포함) ② 미실시

4. 귀하께서는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면 혹은 실시하였을 때 해양스포츠 활동에 참여 하고싶습니까?

- 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② 상황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상황에 따라 참여한다 ⑤ 적극 참여한다

5. 귀하는 해양스포츠 활동에 얼마의 비용을 사용하시겠습니까?(월단위)

● 주 5일 근무제 실시 전

- ① 5만원 미만 ② 5만원~10만원 ③ 10만원~15만원 ④ 15만원~20만원 ⑤ 20만원~25만원 ⑥ 25만원~30만원 ⑦ 30만원 이상

● 주 5일 근무제 실시 후

- ① 5만원 미만 ② 5만원~10만원 ③ 10만원~15만원 ④ 15만원~20만원 ⑤ 20만원~25만원 ⑥ 25만원~30만원 ⑦ 30만원 이상

6. 귀하께서는 해양스포츠 활성화의 장애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경제적 부담	①	②	③	④	⑤
2) 시간 부족	①	②	③	④	⑤
3) 접근성 불편	①	②	③	④	⑤
4) 해양스포츠 시설 부족	①	②	③	④	⑤
5) 해양스포츠 프로그램 부족	①	②	③	④	⑤
6) 해양스포츠 정보 부족	①	②	③	④	⑤

7. 귀하께서 주5일 근무제를 한다면 해양스포츠를 경험해 보고 싶은 이유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다른 레저스포츠보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레저스포츠보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3) 시간적인 여건이 맞아서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레저스포츠보다 흥미와 재미가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레저스포츠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6) 건강과 체력의 유지·증진을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7) 운동기술습득, 정신력 강화 등 자아실현을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8) 기분전환, 스트레스 및 일상생활의 지루함 해소를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9) 동료간의 우의증진, 사교 및 친목도모 등의 대인관계를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0) 가족 상호간의 화합, 이해증진을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1) 자연에서 모험적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8. 귀하께서는 해양스포츠 활동의 만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건강과 체력의 유지·증진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사교 및 친목도모, 동료간의 우의증진 등의 대인 관계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족 상호간의 화합, 이해증진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운동의 기술습득, 정신력 강화 등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기분전환, 스트레스 해소, 일상생활의 지루함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